

2024-03-11 (2024-11호)

03월 1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1,320원 의미와 美 물가

서울, 3월1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 결과를 소화하면서 단기 박스권 탐색에 나설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5-1,335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6월 금리인하 확률이 80% 정도 반영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나올 미국 물가지표(CPI, PPI)를 통해 이 같은 전망에 대한 조정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2월 물가지표에 앞서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엇갈린 해석을 낳았고, 그 결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존 전망을 바꾸지는 못했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보다 빠른 0.3% 상승한 데 이어 2월 CPI는 0.4% 상승했을 것으로 봤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시기가 머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만큼 달러가 폭넓은 강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졌다. 이에 지난 주말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310원대 중반까지 좀 더 밀렸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차익실현 양상 속에서 투자심리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달러의 추가 약세 시도도 주춤해졌다.

최근 AI·반도체 기술주 급등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 물가지표 결과에 따른 국내외 주가 반응이 전반적인시장심리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재개된 달러 약세에 달러/원 환율은 한달 넘게 단단하게 유지한 박스권 하단 1,320원을 뚫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1,320원 부근에 대부분의 저항선이 몰려있는 터라 환율이 이 같은 지지선을 의미있게 뚫어낸다면 환율의 낙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잖이 나온다.

다만, 금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에 이어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 결과 따라 환율 아래가 막힌다면 환율은 관성적으로 1,320-1,340원대 기존 박스권으로 회귀해서 그 레인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달러/원 박스권 하단이 새롭게 하향 조정될 경우 그간 기계적으로 대응해온 수급 주체들의 변화가 뒤따를지는 주목된다.

한편, 중국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마무리된다. 지난 30여 년간 가진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은 없을 예정이다. 전인대 폐막 이후 중국 증시와 위안의 후속 반응은 원화의 변동성을 야기할 재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발표한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비트코인 열풍

비트코인은 7만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금리가 낮고 '블록체인'과 '웹3.0'이 대세였던 2021년 11월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1년 호황 이후에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파산과 붕괴로 수백만 명이 손실을 입은 '암호화폐의 겨울'이 이어졌다. 여러 암호화폐 경영진이 형사 고발을 당했고 규제 당국은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막지는 못한 것 같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출시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된 것을 지적하지만, 무엇이 상승을 주도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암호화폐 팬들은 업계가 성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 美 CPI에 관심 집중

12일 발표될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작 시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빠른 0.3% 상승한 데 이어 2월 CPI는 0.4%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는 경제 호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2024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올해 말에도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3월 하순 연준의 다음 회의를 앞두고 경제 및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 중국 통화정책과 부동산

중국이 2024년 예상대로 안정적인 수준인 5% 성장 목표를 발표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부양책을 펼칠지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후 1주일간 들뜬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했다.

국영 개발업체 완커 채권이 급격한 매도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기는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다. 15일 최신 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금까지의 지원책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해 올해 신규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금리는 미국에 비해 이미 낮지만 디플레이션 환경으로 인해 실질 금리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

⊙ 영국 임금 지표

영국 경제는 16년 만의 최고 수준인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했다.

영란은행은 성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까지 3개월 동안 19번째 연속으로 구인 일자리가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직원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장기 병가율도 고용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영란은행이 중시하는 지표인 평균 정규 임금 증가율은 12월에 6.2%로 둔화되어 1년여 만에 가장 느린 성장 속도를 보였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확신할 만큼 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12일 발표될 임금 지표는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 포르투갈 총선의 향방

포르투갈은 10일 2년 만에 두 번째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과거 같았으면 이러한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 국채 대비 포르투갈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은 1년 만의 최저 수준인 약 134bps에 불과하다. 포르투갈(및 남부 유럽) 국채에 대한 심리는 긍정적이다.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채 전망이 개선되고 정권 교체로 이러한 궤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해서 이번 선거가 "볼 것 없는" 선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10일 선거에서 확실한 승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극우정당인 체가가 15~20%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

6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극우 세력의 성장과 포퓰리즘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대선 전망에 눈 돌리는 월가

뉴욕, 3월11일 (로이터) -

실적과 통화정책에 집착하는 투자자들이 올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또하나의 변수인 2024년 미국 대선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인상을 제안한 반면,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2017년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은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발전을 자랑했다.

이러한 제안과 앞으로 몇 달 동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다른 정책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어떻게 흔들릴지 가능하기는 어렵다. 대선 승자는 양분된 의회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략가들은 정치적 전망이 시장을 움직여온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과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얼마나 빨리 완화할지에 대한 기대감 변화 등이 포함된다. S&P500지수는 연초 대비 약 7.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다.

폴 크리스토퍼 웰스파고투자연구소 글로벌 시장 전략 헤드는 "(투자자들은)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정치가 여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면서 "모두가 후보는 알고 있지만 매우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81)과 트럼프(77)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바이든은 7일 15%인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자산이 1억달러 이상인 미국인의 소득에 대해 최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제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래리 텐타렐리 블루칩데일리트렌드리포트 수석 기술 전략가는 "세금 정책 제안은 당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FRA 데이터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S&P500지수는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해에 평균 1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연평균 수익률 12.8%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동시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변동성이 커진다. 이달 초 BofA글로벌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과거 선거가 있었던 해에 CBOE 변동성 지수가 2분기부터 11월까지 평균 25%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BofA는 선거일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변동성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BofA는 최근 S&P500지수의 목표치를 5000에서 5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거 추세도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976년 슈퍼 화요일 등장 이후 예비선거 전 S&P500 지수의 연초 대비 상승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시기와 80%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LPL 파이낸셜 데이터는 밝혔다.

LPL파이낸셜은 그러나 최근 S&P500지수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하기 위해 많은 단기 경제 데이터를 소화해야 한다.

8일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미국 일자리 증가세가 가속화됐지만 실업률 상승과 임금 상승률 둔화로 6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또한 12일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 내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만큼 완화됐는지 지켜보고 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11일(일)

- 관세청: 3월1~10일 수출입
-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10:00)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 행태 변화의 특징과 영향 (12:00)
-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7~13일, 스위스 바젤)

3월12일(화)

-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별 특징에 따른 비교 (12:00)
- 금융감독원: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14:00)
-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 공개 (2.22일 제4차 본회의, 통방) (16:00)

3월13일(수)

- 통계청: 2024년 2월 고용동향 (08:00)
-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개최 (10: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10:30)
- 한국은행: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한국은행: 2024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3월14일(목)

- 금융위원회: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09:30)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 (10:00)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10:00)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12:50)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련 현장방문

3월15일(금)

- 한국은행: 2024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06:00)
- 기획재정부: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기획재정부: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11:00)
- 한국은행: 2024년 1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1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11-18일		중국	총통화공급(M2) YY	2월	8.8%	8.7%
3월11-18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2월	1,500.0B	4,920.0B
3월11-18일		중국	FDI (YTD)	2월		-11.70%
3월11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연율	4분기	1.1%	-0.4%
3월11일	23:00	미국	고용추이	2월		113.71
3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물가지수 MM	2월	0.1%	0.0%
3월12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2월		89.90
3월12일	21:30	미국	CPI MM, SA	2월	0.4%	0.3%
3월13일	03:00	미국	연방예산	2월		-22.00B
3월13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월	-1.0%	2.6%
3월13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8일 주간		188.2
3월14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8일 주간	218k	217k
3월14일	21:30	미국	PPI MM	2월	0.3%	0.3%
3월14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2월	0.7%	-0.8%
3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2월		-0.7%
3월15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2월	0.3%	0.8%
3월15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2월	0.3%	0.8%
3월15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2월	0.0%	-0.1%
3월15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3월	76.6	76.9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11일 (월)

- ⊙ 유로그룹 회의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3월12일 (화)

- ⊙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 겐론NPO 주최 국제 심포지엄 개최사 및 토론 참석 (오후 1시)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3월13일 (수)

- ⊙ 피에로 시폴로네 ECB 정책이사, 밀라노공과대학교 주최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8시45분)

3월14일 (목)

- ⊙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 OECD 및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주최 라운드테이블 행사 토론 참석 (오전 10시)
- ⊙ 클라스 노트 ECB 정책이사, 네덜란드 중앙은행 연례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오후 9시)
- ⊙ 루이스 데 권도스 ECB 부총재, 반가르디아 포럼 대담 참석 (15일 오전 3시)

3월15일 (금)

- ⊙ 러시아 대통령 선거 (17일까지)
- ⊙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런던 임페리얼컬리지 경영대서 강연 (오후 11시30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美 규제 당국, 대형은행 자본 규제 완화할 듯 - 소식통들

워싱턴, 3월7일 (로이터) -

미국 규제 당국이 월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바젤 III" 제안에 따라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추가 자본금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규제 기관 및 규제 당국과 긴밀한 업계 임원 3명이 전했다.

지난 7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주도의 은행 규제 당국은 자산이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이 잠재적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따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 산출 방식을 개편하는 "바젤 III"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 당국은 영향을 받는 약 30개 대출 기관의 총 자본을 약 16%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소식통들은 당국이 전면적인 초안 재작성에 착수함에 따라 이 수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규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은 해당 제안의 영향에 대해 수백 건의 공개 의견과 은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

세 소식통은 가장 큰 자본금 절감은 은행이 운영 위험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 은행들은 규제 당국에 투자 은행과 같은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낮춰줄 것을 촉구해 온 바 있다.

관계자들은 또한 저소득층 대출자에 대한 모기지과 재생 에너지 세금 공제에 대한 높은 위험 가중치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세 소식통은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문 부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과 함께 해당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한 정부 관계자는 파월이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6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재작성된 규칙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우려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 - 연준보다 빠른 ECB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은 아직 반영하지 않아

플로리다 주 올랜도, 3월8일 (로이터) -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과 유로존 금리 전망에 대한 놀랍도록 긴밀했던 상관관계가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ECB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곧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는 경제 현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미국 경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일부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말 장기 '중립' 금리 전망을 올릴 수도 있다는 추측은 확대되고 있다.

당연히 두 중앙은행의 관리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반대해 왔다. ECB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신뢰를 잃고 싶지 않고, 연준은 경제의 '연착륙' 또는 '무착륙'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연준과 ECB 관리들의 발언은 가능한 한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어조를 띠었고, 그 결과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예상 경로는 올해와 2025년까지 거의 동일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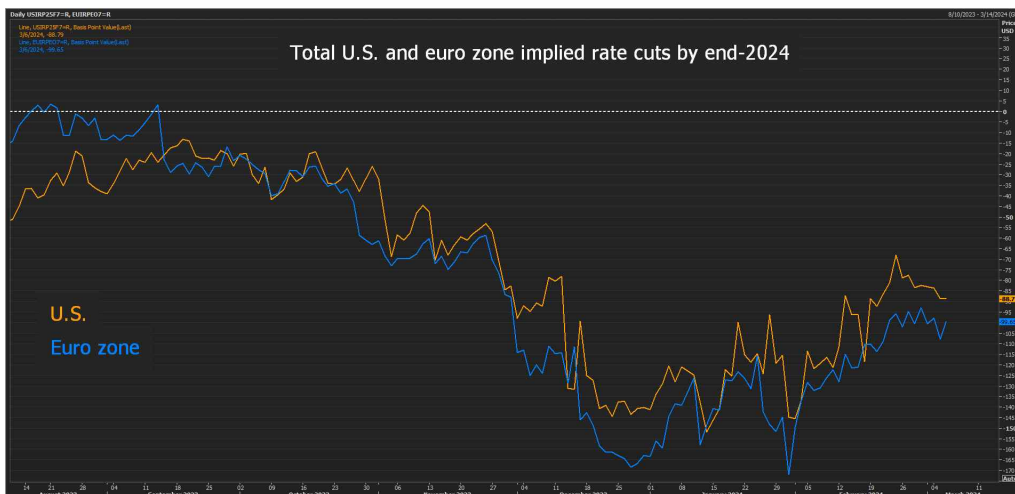
미국과 유로존 단기 국채의 상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면서 유로/달러 환율에 족쇄가 채워졌고 외환 및 채권 시장 변동성은 축소됐다.

금융 시장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다리오 퍼킨스 TS롬바드 글로벌 거시 전략가는 "ECB 정책 결정권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환율을 지지하려는 헛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더 지속될 수는 없다"며 "ECB와 시장은 현실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ECB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내년 여름에 1.9%로 떨어지고 2026년 말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2026년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ECB는 또한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6%로 낮췄는데, 이는 연준의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인 1.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미국의 전망치는 이달 말에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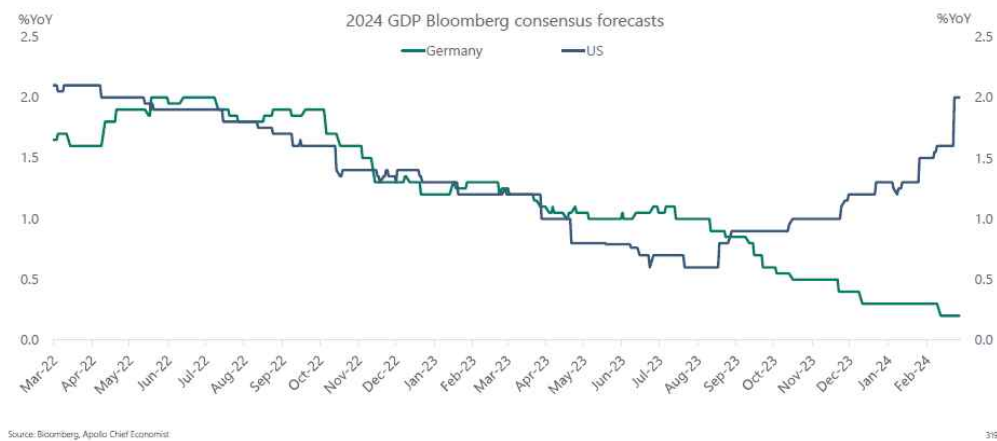
◆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다?

토르스텐 슬로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 올해 미국과 독일의 성장률 전망 사이에 벌어지는 큰 격차를 강조했다.

지난 3월1일 그는 미국 성장률 및 물가 압력 재가속화를 언급하며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결론은 연준이 2024년 대부분을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소비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결과적으로 연준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며 금리는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markable divergence in growth expectations between the US and Europe



시장은 아직 미국과 유로존의 이러한 차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유로는 올해 달러 대비 1% 미만으로 절하됐다.

현재 시장에서는 두 중앙은행이 올해 중반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12월 말까지 약 90~95bp,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약 125bp의 정책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양 지역의 이 같이 긴밀한 상관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도이체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ECB의 예상보다 1년 빠른 올해 중반에 2%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내 150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 시장, 특히 통화의 경우 금리 인하 총알이 언제 발사되느냐보다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중요하다.

도이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메모에서 "유럽의 성장, 인플레이션, 재정 조합이 연준보다 ECB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클 가능성 쪽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올해 유로/달러 리스크는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中, 성장 유지하며 동시에 경제 '혁신' 가능할까?

베이징, 3월6일 (로이터) -

리창 중국 총리의 국가 비전에는 내재된 모순이 있다. 경제 모델을 '혁신'하려는 그의 목표는 성장률을 5%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 총리는 5일 중국 의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 부문 과잉생산, 지방 정부 부채 위험을 억제하고 "정당한" 부동산 부문 프로젝트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부채 주도의 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매우 낮은 수준의 가계 지출 등 중국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과잉, 제조업 투자는 중국 경제 성장의 근원 축이었다. 분석가들은 이를 억제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낮은 성장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내티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이는 누락이 결합된 모순"이라며 "그들은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자유 시장과 소비 주도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60개 항목의 의제에서 과감한 경제 및 사회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은 자본 계정과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투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5일 리 총리의 공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시진핑의 개혁 의제에 따른 2013년 랠리와 대조적이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공약 이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신뢰 위기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 연구 기관인 MER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맥스 젠글린은 리 총리의 보고서가 미칠 영향에 대해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여전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사회에는 지도부가 제시하는 길을 믿지 못하는 일종의 '약속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계획 중 상당수는 리 총리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안정'이라는 필수 조건에 반하는 것이었다.

2015년 중국은 자본 유출 공포를 겪으며 시장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2017년에는 많은 농촌 이주민들이 도시의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장려하는 마오 시대의 거주 규정을 완화하려는 계획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대도시 당국은 사회 안정을 이유로 '저소득층 인구'의 유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비와 시장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흔들리고 급격한 경기 둔화의 위협이 다가오자 중국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인프라 지출에 의존했다.

2021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토지 개발로 인한 지방 정부의 수입이 급감했고, 많은 도시의 부채 수

준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채가 많은 도시들의 정책 대응 중 일부는 성장 기어를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여 세수를 늘리는 것은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와 상반된다.

그러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계 소득 성장을 촉진하려면 지방 경제의 다른 부분, 그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국영 기업과 그 하청업체에서 자금을 가져와야 한다.

트리비움 차이나의 경제 분석가인 조 페이셀은 "가계로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것은 기득권층으로부터 돈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작은 조치들

중국 당국은 5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농민 연금을 한 달에 20위안(2.78달러)씩 103위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보육 비용을 줄이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보조금 주택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또한 중국이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일회성 조치로 일부 지출 계획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도시 등록 허가를 더욱 완화하여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조업 단지를 밸류 체인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생산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계 소득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시도가 나중에 구조적 변화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한다면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화바오 트러스트의 이코노미스트 니에 웬은 첨단 산업이 중국이 1200만 개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 졸업하는 비슷한 수의 대학생을 노동력으로 흡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약하고 가계와 기업 모두 상대적으로 큰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질적 성장과 리스크 관리는 장기적인 과제"라며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부채 증가

이러한 균형은 현재 경제 생산량의 약 3배에 달하는 중국 부채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의 구조조정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 정부 부채는 GDP의 23.8%에 달한다. 이에 비해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기관의 부채는 약 80%에 달한다.

리창은 보고서에서 중앙 정부가 올해 1조위안 규모의 특별 초장기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성장 목표 달성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겠다는 신호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패덤 컨설팅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후안 오츠는 중국이 일본과 같은 스태그네이션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오는 14일 세 번째 외환시장 연장 시범운영... 참여기관 확대·거래 방식 변화 계획

서울, 3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하반기 공식시행될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앞두고 외환당국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오는 14일 세 번째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국내기관의 경우 지난달 참여했던 10개(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미즈호은행, 키움증권)를 포함해 대구은행이 새롭게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은 2월에도 참여했던 SSBT홍콩, 런던이 거래할 예정인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RFI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RFI중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고 참여 가능한 곳이 있으면 들어오도록 하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운영 거래방식도 당초 정해진 시나리오 방식에서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거래로 변화를 줄 계획이다. 거래 시간은 오후 7시반에서 8시반, 새벽 12시반에서 1시반 정도가 예상된다.

위의 당국자는 "이번 거래에서는 서울 장중에서 하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보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시범운영 거래에서는 CLS 결제 외에 NON-CLS 결제 측면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CLS 결제대상 거래 제출시간은 오후 10시지만, 당국은 금융결제원 및 시장참가자들과의 논의 끝에 달러/원 스팟거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4일 기준 RFI 등록 9곳 등록 완료... 미즈호 은행 추가

서울, 3월4일 (로이터) -

올해 7월부터 공식 시행될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앞두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9곳 기관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4일 기준 RFI로 등록된 곳은 SSBT 홍콩·런던지점, HSBC 싱가포르지점, CA-CIB 파리, MUFG 도쿄, SC 런던, 국민은행 싱가포르·런던지점에 이어 미즈호은행 도쿄 등으로 총 9곳이다.

외환당국은 상반기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RFI 등록을 3월29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